

광주시 내년 예산 4조5135억 시의회 상정

먹거리·일자리 창출 중점 전남도 6조7508억 확정

광주시가 내년 주요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벨리 가속화, 도시철도 2호선 우선 착공, 수영대회 본격 준비 등으로 정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올해 시정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방향을 밝혔다.

윤 시장은 올해 시정 주요 성과로 지역 현안 22개 사업 국정과제 반영, 에너지산

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지방산단 그린벨트해제로 에너지기업 유치 견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계와 4대 기초협약 체결 및 국가정책 채택 등을 꼽았다.

윤 시장은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수영대회 본격 준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낮은 재정자립도와 증가하는 복지수요가 우려되지만,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휴먼시티 ▲찾고 싶고 머물

고 싶은 매력 도시 ▲소통과 연대를 통한 광주정신 확산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공동체 조성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내년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준비단’을 꾸리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준비와 함께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보다 4737억원이 증가한 4조5135억원으로,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66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443억원이다.

전남도 내년 예산은 6조7508억원 규모

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6조381억원, 특별회계 712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6조3735억원) 대비 3773억원(5.9%)이 늘었다.

절차상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예산안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별로 19억5000여만원이 삭감되고 13억3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개교식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개교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장, 조영택 세계수영대회조직위 사무총장,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다음달 16일 문 연다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다음달 16일부터 시민을 맞는다. 개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47일간으로, 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이용 요금은 입장료 스케이트·썰매·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으로 할인 대상자는 50% 감면된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케이트장 규모는 60×30m(1800㎡)다.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얼음썰매장은 30×20m(600㎡)로 기존보다 폭을 5m 확장했다.

지난해 인기를 끈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교실(매주 수요일 오후 1시~오후 2시), 주말 디제이 박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장난감·책 등을 파는 벼룩시장을 열어 저음 마련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시청사 문화광장에서 해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석환 광주시 회계과장은 “지난 겨울에도 시민 34만여 명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등을 이용했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나주시 내일까지 '계약심사 워크숍'

전남도는 계약심사에 따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공무원 및 용역사, 시공사, 자재회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17년 계약심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08년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축적한 계약심사 기법을 함께 공유하고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2008년부터 올 11월까지 약 8000여건을 심사해 82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안전분야 예산에 관해서는 중역 심사해 부실공사 예방에도 기여해왔

다고 자평했다.

또한, 계약심사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등 14개 분야 실무를 수록한 '2017 계약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과 용역사 등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노력도 진행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26개 업체가 참여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전시관'을 함께 운영한다.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장흥으로 이전한다

옛 장흥고도소 부지 3층 규모 160억 들어 2019년 완공 예정

전남소방본부가 전남도청에서 장흥으로 이전한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장흥읍 장흥읍 원도리 옛 장흥고도소 배후부지 3만7964㎡에 160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새 청사는 건축연면적 2800㎡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상황실, 작전영상회의실, 정보통신실, 안전교육장 등을 갖추게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전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설계비 2억1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했다.

통신장비 노후화와 재난신고 통합에 따라 인력·장비를 보강해야 하지만, 현

재 전남도청 내 사무실은 좁아 개선이 어려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재난신고전화 통합 후 전남소방본부 신고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35만4267건에 달했다. 접수대를 13대에서 30대로 늘리려면 1250㎡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367㎡에 불과하다. 소방본부는 종합상황실, 소방교육대, 특수구조대, 안전체험관,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서 등 200여 명에 달하는 6개 기능을 집중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서부권인 무안에서 중부권인 장흥으로 옮기면 전남 모든 육상 권역에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진다”며 “접근성뿐 아니라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해 재난사고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복구, 오늘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

광주 지역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 북구는 30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 광주회의에서 주최하는 '지방분권 개헌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정장협의회(회장 송광운 북구청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광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로 확산 및 지방분권의 의지를 한 목소리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방분권개헌추진 광주회의'(상임의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출범

선언 및 경과보고 등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진다.

또한 최영태 지방분권형개헌 광주전남추진회의 의장,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상임대표, 김성대 한국민물장어양식수협장,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도 열린다.

이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개헌은 광주부터' 등 구호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승유 광산구의회 의장 회기 중 해외여행 '물의'

광산구의회 조승유 의장이 정례회 회기 중에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광산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제 234회 정례회가 개최돼 다음달 19일까지 2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조 의장은 지난 23일 정례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인 24일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마지막 정례회로, 정리추경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잡혀있다. 집행부의 1년간 행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조 의장은 회기중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부담 때문에 동료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

장이 자리를 비우며 따라 지난 28일 개최된 201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심사안 2차 본회의에선 박삼웅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29일부터 진행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장이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내부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출석 감사가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의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잠깐 자리를 비운 정도로 생각했다”며 “정례회 회기중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동료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승렬기자 srchoi@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주) 송도건설

SONGD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610-9226
- 주월동 | 18py ☎(062)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